

피난 생활 보고 · 避難生活報告 5 8-1

망망한 바다의 해도(海圖)처럼

한국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이번주는 홋카이도에서 후쿠시마로 돌아오자마자 바로 황급히 여행준비를 하고는 집을 뛰어나오다가 하마터면 여권을 잊어버리고 전철을 탈 뻔 했습니다. 공항이 나리타가 아닌 하네다였던 것과 비행시간이 단지 2 시간이었던 것이 원인이었는지요. 완전히 국내여행 기분이었습니다. 그대로 하네다 공항으로 향하고 있었다면,,, 생각만해도 등에서 식은 땀이 납니다. 요즘 저는 완전히 자신을 잃었습니다.

공항에서도 망설임 끝에 서울행 비행기에 탑승하기 직전에서만 해외여행 보험에 들었습니다. 오늘 저녁 도착해서 내일이면 일본에 돌아오기 때문에 없어도 괜찮을거라 생각했습니다만 알 수 없는 것이 세상일이라고 생각하고는 가입하고 탑승했습니다. 그러자 이륙한 비행기는 서울 상공에서 심한 난기류에 말려들어 기체가 상하로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지진 재해는 지나갔지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느끼게한 여행이 되었습니다. (8월 31일 금요일 서울 상공에서)

저는 지금 서울에서 귀국편에 몸을 실었습니다. 어젯밤은 김포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호텔에서 묵고 다음날 오후에 서울 시내에 있는 일본인 교회 몇 곳과 일본어 예배를 드리는 한국인 교회에서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합동전도회 '동일본 대지진 재해 지원 집회'에서 강연했습니다. 집회 장소는 온누리교회 예배실이었습니다만 놀란 것은 지난달 방한했을 때는 예배실 안이 의자로 꽉 차있었는데 이번에는 예배실 모습이 변해있었습니다. 원탁이 한 면에 배치되어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한국전통 다과가 놓여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마치 일본 각지에서 있었던 러브 소나타 집회를 방불케했습니다.

서울에서 이렇게 대규모로 일본인을 대상으로 전도집회가 합동으로 열리는 것은 처음으로 과연 몇명이 모일지 궁금했는데 시간이 되자 거의 만석이 되었습니다. 작년 3월 11일 일본에서 일어난 거대 지진 재해를 지금도 해외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조금 아쉬웠던 것은 지난달 방한했을 때와는 달리 국제정세가 긴장되어 있었던 점입니다. 어딘가 모르게 얼어있는 듯한 분위기 속에서 정치의 동향을 걸눈질하면서 방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가진 집회제목이 '기즈나(유대)'였던 것은 어쩌면 이러한 때일 수록 힘없고 약하지만 보통사람들의 풀뿌리와도 같은 끈질긴

교류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들 자신이 지금까지 지진 재해 이후로 얼마나 많은 분들로부터 마음이 훈훈해지는 지원을 받아온 것인지요. 행정부로부터도 그렇습니다만 이를 훨씬 뛰어넘는 빈도와 스피드감으로 유형무형의 도움의 손길이 마치 해일과도 같이 저희들에게로 몰려왔습니다. 언제나 몇번이고 다시 생각해 보아도 이는 마치 드라마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기즈나(유대)'가 저희들에게 다리가 되어주었고 저희들을 격려해주었으며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저희들을 살려주었습니다. 이번에 국가간에 감돌고 있는 긴장도 수많은 보통 사람들이 이어놓은 '기즈나(유대)'로 감싸 그물과 같이 이어진 다리로서 위기를 극복하는데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저 높은 하늘에서 이 낮은 땅으로 내려오신 구원의 주 예수님이 천지를 잇는 화해의 사자가 되어주셨듯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마태복음 5장 9절)

(9 월 1 일 서울~하네다편에서)

피난 생활 보고 · 避難生活報告 5 8-2

망망한 바다의 해도(海圖)처럼

어제 지진 재해로 인해 도치기(栃木)로 뿔뿔이 흩어진 성도님 두분을 방문했습니다. 피난 생활도 이젠 1년반이나 지나 지구전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방문한 성도님 중 한 분은 작년 3월에 있었던 피난명령으로 고향을 쫓거나 친척집으로 부모님과 자녀와 함께 몸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 가족을 받아준 친척 분들이나 성도님 가족 모두가 아마 많이 힘든 나날을 지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래 끄는 피난 생활로 인해 성도님 모친이 편찮으시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방문한 또 다른 성도님은 피난처에서 양로원에 입주하셨습니다. 94세가 되셨습시다만 지진 재해전에는 다부지셔서 혼자서 생활하시고 계셨습니다. 밭을 일구시거나 운동도 조금씩 하시는 것이 일과셨습니다. 그렇지만 지진 재해 이후로는 갑자기 피난 생활을 하셔야만 했으며 또한 양로원에 입주하게 되셨고 지금은 양로원 밖으로 나오는 것이 엄두가 나지 않아 건물 안에서만 날마다 네번 걷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도님은 예전에 고향에서 즐겁게 교회를 다니던 때가 자꾸 머리에 떠오른다고 하셨습니다. 혼자 자유롭게 살고 계셨던 일상을 빼앗긴 성도님이 남의 일 같지만 않아서 슬펐습니다. 헤어질 때까지 송구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래도 성도님은 예전에 해군장교답게 격동의 나날속에서도 뭐가 어떻게 된다하여도 “예수님만 바라보며 천국을 목표로 이곳에서 한발 한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다부지게 말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헤어질 때는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만남이 될지도 모른다’는 듯이 한참동안 제 손을 꼭 잡으시고 저를 지그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실은 제가 목사가 된 25 세 당초부터 성도님은 “이분은 일본 제일의 목사”라며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말하고 다니셔서 그때마다 저는 얼굴이 빨개져서는 몸둘바를 모르며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을정도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고보니 이 또한 고맙고 제게는 소중한 추억입니다.

역시 저희들은 갈래 갈래 뿔뿔이 흩어진 것이라고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설마 이대로 소중한 고향의 모든 것 하나 하나가 퇴색되어 정말 추억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은 아닌가고 양로원에서 헤어질 때 제 손을 놓아주지 않는 성도님의 손을 떨며 이별의 불안과 슬픔의 덩어리가 마음을 후렸습시다.

후쿠시마 아파트로 돌아온 저는 가까운 전기점에 갔습니다. 카운터에서 점원이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예전에 후타바군(双葉郡)에서 살지 않으셨는지요?” 얘기를 들어보니 지금은 들어갈 수 없는 고향 땅에 있었던 전기점에서 근무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 본 기억이 났습니다. 옮겨온 이 시가지에서 같은 고향사람을 서로가 낯새로 알아보는 것인지요? 아니면 얼굴 어딘가에 싸인이라도 새겨져있는 것인지요?

그분은 지진 재해 직후 고향에서 쫓겨나와 지금은 이와키시의 가설 주택에 입주해 있다고 했습니다. 우연히 저는 그 가설 주택을 막 지나온 길이었습니다. ‘아! 여기에도 가설주택이,,,’ 그곳은 신축의 집들이 들어선 뉴 타운 일각에 조성된 공원 안에 마치 역지로 끼어든 것 같이 부자연스럽게 지어져 있었습니다.

이와키시내에도 이러한 가설 주택이 27 군데나 줄지어있습니다. 거리 여기저기에 뻑뻑하게 들어섰습니다. 손바닥만한 여백의 토지라도 찾고 있는 듯이 도처에서 보이는 그와 같은 광경은 이상할 정도입니다. 떠나온 고향집이 시골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넓은 집에서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지금은 공동주택 같은 간이주택에서 조용 조용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겠는지요..

단신용 가설 주택은 다다미 4 장 반의 넓이입니다. 그곳에서 생활하시는 분이 “마치 교도소 같다”고 표현하거나 다른 분은 “수용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뿔뿔이 흩어지게 된 사람끼리, 그 날 고향을 쫓겨나온 사람끼리 서로 고향을 그리며, 혹은 가슴 한 구석에 구멍이 뚫린 것 같은 허전함을 메우기라도 하듯이 서로가 서로에게 인사를 나누며 마치 같은 종류의 애수를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곳이든지 이러한 일이 많으면 많을 수록 좋겠지요. 서로가 좋은 ‘기즈나(유대)’를 맺으며 곳곳에 다리를 놓아 지진 재해후의 ‘기즈나(유대)’ 네트워크가 여기저기 마치 그물과 같이 뻗어나가면 좋겠다고, 한국에서 돌아와서도 여전히 ‘기즈나(유대) 집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9월 4일, 도치기현 방문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드디어 교회건설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도 감사합니다. 건축허가가 내려서 지중깊이 암반까지 닿는 23 개의 말뚝박기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와키시는 전체적으로 지반이 약하다고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건축한 교회에서는 본 적도 없는 대규모의 기초공사를 했습니다. 성서에서는 모래 위에 세우지 말고 바위 위에 세우라는 집짓기에 대한 것이 적혀 있습니다. 이번에 건축하는 교회도 앞으로 또다시 지진이 일어난다면 교회 안으로 모두 피난할 정도의 튼튼한 건물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공사는 지금 막 시작되었습니다만 이제부터 구약 성서 느헤미아에 적힌 예루살렘의 성벽재건과 같은, 학개에 쓰여진 성전재건과 같은 이야기로 이어지겠는지요.

지금 저는 홋카이도 상공에 있습니다. 후쿠시마공항에서 삿포로에 있는 지토세(千歳) 공항으로 가서 그곳에서 또다시 메만베쓰(女滿別)공항을 향해 날면서 북쪽의 대지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주 수요일에 도치기(栃木)에서 돌아오자마자 몸에서 열이났습니다. 여름 감기였는지요? 이번에는 목요일부터 허리를 못쓰게 되어 결국 어제까지 이틀동안 일어날 수 없어서 교회건설 상담등 2곳의 예정을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있을 홋카이도에서의 강연예정도 과연 어떻게 될지 걱정했습니다만 이렇게 허리에 파스를 붙이고 그 위에 벨트를 매고 어떻게든 예정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차로 후쿠시마 공항까지 달릴 때 아내는 “출발 직전까지 끄꿍 앓아도 언제나 예정대로 어떻게든 외출하네요!”라며 어이없어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도 제 자신이 ‘그렇게 체념에 가까운 몸 상태였는데도 아침이 되면 이렇게 어떻게든 된다’는 것이 조금 얼떨떨하기도 합니다.

후쿠시마공항에서는 허리가 꺾인 상태로 탑승 입구까지 겨우 도착했고 삿포로에서

다시 비행기를 갈아탄 저는 기타미(北見)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번집회는 Gospel Songs 콘서트와 Cooperation 으로 후쿠시마지원 자선콘서트 집회입니다. 물론 어느 모임이나 약속 시간 직전에 약속을 취소할 수 없기에 이번에도 조마조마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안아서 이곳까지 옮겨주셨습니다.

(9 월 8 일 삿포로~메만베쓰(女滿別)편)

오늘은 9 월 10 일 월요일, 기타미(北見)에서의 지진 재해 강연회도 Gospel Songs 지진 재해 지원 콘서트도 잘 마쳤습니다. 조금 허리를 구부린 채 어떻게든 강연을 끝내고 홋카이도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몇 몇 분으로부터 “지진 재해 이후로 홈페이지를 보고 있었습니다”라고 하시거나, “좋아하는 파일 저장 사이트에 넣어두고 보고 있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크리스천이 아닙니다만 묘하게도 이 사이트를 발견하게 된 후로는 계속해서 보고있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도 만났습니다. 지진 재해 속에서 오늘의 인터넷 시대가 낳은 뜻하지도 않은 기즈나(유대)였습니다.

의외라고 말한다면 이번 주는 신사청(神社庁)에서 강연요청을 받고 집회장소에 갔습니다. 신사의 신관이나 스님 앞에서 강연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지진 재해후 일본 미션스쿨도 상당히 많이 방문했습니다. 이것도 지진 재해로 체험시켜주신 새로운 세계인지요? 저는 지금 지진 재해후에 그물처럼 망이 쳐진 네트워크 속을 걷고 있는지요?

성서에서 전도자가 된 바울에 대해 하나님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 장 15 절) 또한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 (16 절) 그리고 보니 15 절에 적힌 ‘택한 그릇’은 제가 24 세 당시 신학교 졸업 때의 리포트 제목이었습니다.

지금이 되어서야 그 말씀이 웬지 제 가슴을 울리며 파고 듭니다.

베드로의 인생 또한 같았습니다. 그의 인생 후반기를 주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고 말씀하셨다. 같은 제자인 요한은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가리키심이라’ 고 (요한복음 21 장 18~19 절)에서 밝혔습니다.

그 자신도 생각지도 못한 곳으로 끌려가 최후는 순교의 길을 걷게 된다는 주 예수의 말씀은 과연 그대로 그의 인생에서 실현되었습니다. 주가 말씀하실 때에 그가 깨달거나 아니 못 깨달았다 하여도 말입니다.

아마 우리들 각자의 사소한 인생에 있어서도 이러한 마치 망망한 바다의 해도(海圖)와 같은 하나님께서 펼치신 한 길이 놓여져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하늘을 우러르며 나아갈 때 떨어지며 괴로워하면서도 길목마다 하나님의 넓은 사랑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해놓으신 것이 있을 것이라고,,, (9월 10일)

오늘은 9월 16일 그런데 저는 여전히 허리가 굽은 채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0일이나 지났는데도,,,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워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오카야마(岡山)로 향하는 신칸센 안에 있습니다.

오래 가는 것이라면, 피난 생활입니다. 피난생활이 1년반이나 지났다는 것은 정말 이상사태라고, 한 의사가 텔레비전에서 호소하셨습니다.

요전에도 한 미션스쿨에서 강연했을 때 "뭔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겠는지요?"라는 질문을 받고는 "만약 부근에 후쿠시마에서 이사해 오신 분이 계신다면 아마도 많은 문제를 그러안고 힘들어 하시고 계실 것이니 그 분들을 배려해 주실 수 있다면 감사하겠다고 호소했습니다.

저희 등을 받쳐주시는 크신 하나님의 손과 주위의 많은 사람들로부터의 성원을 느끼면서 지진 재해 1년반을 맞이하며 빠듯한 여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9월 16일)